

여, 공천경쟁 돌입 야, 대안세력 결집

총선 D-78 ... 광주·전남 정가

설 연휴 이후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서 4·15 총선 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탈당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탈법을 저지른 일부 예비후보들의 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등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시대 신당' 창당 여부도 이달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향후 정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도 "전국적인 인사를 광주에 후보자로 낼 수 있게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선 70여 일을 앞두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검토 대상인 전략 지역 15곳을 뺀 238곳 지역구에 대한 후보 공모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후보자 접수를 시작해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오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월 7일~10일 후보자 면접을 끝낸 뒤 2월 11일부터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컷오프 명단은 다음달 20~30일께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지역구 실사도 이번 주 시작되며, 광주·전남 지역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2월 2~7일 진행된다.

민주당의 컷오프 명단이 확정되면 사실상 당내 경선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지역 내 높은 지지율 속에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후보군은 컷오프 대상자들과의 합동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선 거구에서 의외의 후보군이 컷오프될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등 컷오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자

민주당, 이번주 지역구 실사
불·탈법 후보 감점 여부 관심
야당 현역 의원들

중도세력 결집 돌풍 재현 나서

체 여론조사와 언론사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구별로 후보자 간 우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민주당의 전략공천 범위와 단수 후보 공천 등 지역구 후보 등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컷오프는 당선 가능성, 당적 변경 이력,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자체 분석에서 후보자 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컷오프되고 경선에도 나설 수 없는 컷오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 이후 탈당했다가 다시 당으로 복귀한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당적 변경이 걸림돌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선 뒤 광산갑 불·탈법 당원모집 관련 후보의 감점 여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이 후보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뒤 민주당에 복당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무소속 현역 의원들도 최근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3시대 창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지역구에 상주하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열세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야당 현역 의원들은 중도 세력의 결집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민중당 등 진보 정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밀바다 민심을 잡는 등 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 중국 입국자 체온 측정 설 연휴 기간인 26일 오전 중국 하이난에서 무안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상대로 보건당국이 입국 전 검역장 앞에서 개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한 폐렴’ 확산 ... 광주·전남도 비상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 ... 중국 여행 취소 사례 잇따라
시·도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 안내문자 발송 홍보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으로 광주·전남 지역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6면〉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 4명 중 2명이 무증상 입국자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중국 여행객이 적지 않은데,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 호텔·관광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데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한국인 남성(5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

선 것으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양상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대응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우한 폐렴’과 관련,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다.

광주·전남도 비상 대응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특히 우한시와 2007년(9월)부터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던 김학범호는 27일 오후 10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 및 지자체 합동 일일

연상회의’에 참석한 뒤 환자 입원치료병상 확보 등 대응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막 방송을 통한 대·도민 홍보도 강화했다.

또 시·군 보건소와 29개 선별진료의료기관의 대응체계를 긴급점검하는 한편, 도내 33개 호텔·리조트를 대상으로 중국인 여행객 등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설 명절 연휴 이후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계획이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축구 아시아 U-23 선수권 첫 우승 도쿄 올림픽 티켓까지 ‘두 토끼’ 잡았다

연장혈투 1-0 사우디 꺾어

한국 축구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길라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8분 터진 정태욱(대구)의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관련기사 20면〉

김학범호는 2014년 1월 시작한 4회째를 맞는 대회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는 겹경사를 맞았다. 김학범호는 이미 결승 진출로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확보해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김학범호는 AFC U-23 챔피언십 역대 대회 처음으로 전승(6승) 우승의 쾌거까지 일궈냈다. 김학범호는 조별리그 3경기(중국 1-0

승·이란 2-1승·우즈베키스탄 2-1승)를 시작으로 요르단과 8강전(2-1승), 호주와 4강전(2-0승)에 이어 사우디와 결승전(1-0승)까지 내리 6연승의 ‘파펙트 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1회 대회 4위, 2회 대회 준우승, 3회 대회 4위에 그치다가 4회 대회를 맞아 우승하며 ‘3전 4기’에 성공했다.

‘도쿄행 티켓’과 ‘우승 트로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김학범호는 28일 새벽 방콕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5·18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9면
- 친환경차 질주 ... 연 10만대 돌파 ▶14면
- 굿모닝 예방 - 함인선 건축가 ▶19면

JTBC 뉴스룸 법정패소와 7대 거짓말

2020년 1월 8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JTBC 뉴스룸은 정정보도하라! 만약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씩 배상하라. 정정보도는 뉴스룸 앵커가 평상시 속도로 법원명령서를 낭독하며 잘 볼 수 있도록 자막을 계속해서 띄워라.”

JTBC 뉴스룸 무엇이 문제였나?

- 1 뉴스룸 제작진은 제보자를 조작했다
- 2 뉴스룸 기자들은 현장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 3 뉴스룸 제작진은 제보내용도 조작했다

뉴스 조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뉴스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뉴스룸을 폐지하라!
뉴스룸 책임자 거짓말쟁이 손석희는 방송계를 떠나라!

- 1 뉴스룸은 제보자를 조작했다
2018년 8월 5일 뉴스룸에서는 돌나라 한농복 구회가 “천여 명을 브라질로 이주시켰으며 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노동 당했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브라질 영사가 농장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민원 서비스를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외교부에 정식 보고했다. JTBC는 브라질에 여행조차 가지 않은 거짓 제보자를 마치 당한 피해자라고 조작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 2 뉴스룸은 현장취재를 하지 않았다
JTBC 기자들은 단 한 번도 돌나라 브라질 농장이나 한국에 있는 10개 농장을 취재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데 법정에 제출하는 방송 전에 한국 농장을 취재했다고 감히 법정도 속이려다 들들 나서 이번엔 법정 심판을 받았다.
- 3 뉴스룸은 제보내용도 조작했다
뉴스룸은 2018년 8월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보도했지만 법정에선 2009년 이전 내용이라고 드러났다. 그러나 그날 뉴스룸 봤던 사람 중에 누

- 4 10년 전 사건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법정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나와 있다. 거짓 제보자의 말을 한술 더 떠서 <조작 보도>했다. 팩트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방송사가 거짓 제보자보다 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속였다!
- 4 반론권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
뉴스룸 제작진은 반론권은 둘째치고 방송 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 법정 답변은 보도 전 반론권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었다고 대놓고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보도 전에 전화한 근거를 대면 간단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 5 뉴스룸 기자들의 또 다른 거짓말
회원들은 최대한 대출받아 이주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방송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제보자의 말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였는데 법정에서는 브라질 농장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농장 이야기라고 변명했다. 뉴스에서는 브라질 이야기만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농장도

- 6 그런 사실조차 전혀 없다. 있으면 그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개인성이 있어서 보도했다고 한다. 막연한 개인성만 가지고 특종이라고 보도하는 대한민국 뉴스 신도 1위라는 뉴스룸의 실체를 보라!
- 6 손석희와 뉴스룸의 끝없는 거짓말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한 가축행위도 고풍 당한다고 했으나 얼마 전에 13명의 장학관들이 방문하여 칭찬한 우수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보도 후 뒤늦게 국내 농장을 취재하러 나왔다가 마을 주민의 증언을 거짓으로 꾸며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도 법정에서 폭로되었다.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가! 손석희와 그 기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뉴스룸의 더러운 실상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 7 거짓말쟁이 손석희는 방송계를 떠나라
분노한 돌나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너무나 뻔한 <조작 보도>임에도 뜻밖에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JTBC 뉴스룸은 가짜로 진짜를 이기는 불법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민사 합의부 판사들은 정확한 증거들을 조사한 후 뉴스룸 제작진의 비행을 깨내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이 보도는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일으켰음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하라!”
JTBC 뉴스룸은 겨우 정정보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뉴스룸 책임자 손석희 사장은 백배사죄하고 방송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구정으로 뉴스룸은 망할 것이고,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뉴스 조작>을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가짜 뉴스쇼가 판을 치고, 언론의 황포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제 돌나라 한농은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JTBC 뉴스룸의 거짓 실체를 밝힐 것이다!

법원 돌나라한농복구회
피해대책본부 054-535-4402
그동안 JTBC 뉴스룸에 당한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